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도보관광 위해 속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살필 수 있는 도보여행 가이드 제작

총 5개 코스로 구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모”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의 도보관광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면서 도보관광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 주요 시설 등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1897 개항문화

거리 도보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도보 여행 가이드는 총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목원동과 만호동 일원의 도시재생여행 ▲1897년 개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구 목포세관부터 목포항 등 경제거점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근대항구여행 ▲근대역사관 등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근대유지사업형

▲목포 배경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필름 속 목포여행이다.

지도에는 1897 개항문화거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기호와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코스별 도보 소요시간 안내 등 목포를 처음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도보여행 가이드 북은 목포근대역사관1·2관,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 배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자원이 풍부한 만호동 일원을 돌아보는 도보 여행 가이드 제작으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 제작

영암군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문화·관광·역사·인물 등 다양한 특화 소재를 활용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초 전남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이 선정된 분야는 ‘지역 특화소재 SNS 영상제작’ 부문으로 제작비용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달 말까지 진흥원과 콘텐츠 개발 세부기획 회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선정, 11월까지 콘텐츠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관계자는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이야기를 담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웹드라마 제작을 구상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공모사업이 군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그려낸 군민 슷 다큐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 등과 더불어 SNS를 활용한 군의 대외 홍보 및 관계 인구 증가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영광읍 남천사거리

주차장 내달 15일부터 폐쇄

KT&G 임대차 계약 종료

영광군은 영광읍 남천리 346-5번지 일원 주식회사 케이티엔지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3월 15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4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유휴부지로 있던 케이티엔지 소유의 땅을 영광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케이티엔지 영광합평지점 이전 및 부지 활용 계획 검토로 2023년 3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상회복 후 반환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폐쇄를 위한 펜스 설치 작업으로 3월 15일부터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니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광군,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

영광군은 오는 2월 24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보급 확대에 비례해 농작업 중 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비숙련 농업인과 농기계 사용 숙련도가 낮은 농업인에 임대 농기계 사용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조작이 어려운 트랙터, 관리기, 파종기 등 농기계 안전기술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농촌진흥청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농작업 시 필요한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비누만들기, 목공예 등 다채로운 미술체험 기회 제공



함평군립미술관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이달 22일 ‘새해맞이 토끼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비누 만들기, 아크릴 무드등, 우드카빙, 목공예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미술체험으로 구성돼 있다.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함평군립미술관(☎061-320-2276)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께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립미술관은 소장품 기획전 ‘전남미술의 재발견’을 개최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황금의 섬 팔금면 우리가 가꾸겠습니다”

신안군 팔금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



신안군은 팔금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79명과 “황금의 섬 우리가 가꾸겠습니다.”라는 구호로 14일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5개의 사업으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 경로당청소도우

미, 공중목욕장 도우미,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도우미,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안전수칙,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작년부터 아름다운마을가꾸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명렬 팔금면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추가 지원 나선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억원 지원

무안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2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3억원을 지원해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업비 약 7억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등유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사용한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유종에 관계없이 리터당 213원이다.

김산 군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법)인별로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법인)별 사업신청서는 지난 10일까지 접수했으며 지원액은 면세 유류 구매 전용 카드 결제 계좌로 3월 중순에 입금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